

2025년 호주 농업전망: 농산물 부문

최 미 라*

1. 개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이하 ABARES)은 매년 3월 호주 농산물 보고서(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에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향후 5년에 대한 중기 전망 분석 내용을 담아 발간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품목의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가격 전망,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2025년 3월에 발간된 호주 농산물 보고서는 2025/26~2029/30년도 중기 전망을 실었으며, 본 장에서는 호주 농산물의 주요 품목인 밀, 조곡, 유지종자(카놀라), 원예작물, 와인용 포도 및 와인의 단기 및 중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1. 향후 전망 시나리오

호주의 농업 생산 및 수출 전망은 계절적 요인과 세계 수급 요인과 호주 계절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 시나리오(baseline senario)와 대안 시나리오(alternative senario)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완화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안 시나리오는 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높은 세계 수요, 호주 내 높은 계절적 변동성을 가정하였다. 다가오는 회계연도(2025~26년도)에 대한 기후와 거시경제 여건은 사용 가능한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mchoi@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BARES)이 2025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 "Agricultural Commodities Resport March quarter 2025"중 제4~8장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본 장에서의 달러는 호주 달러(AUD)를 의미함.

신 데이터를 반영하였으나, 이후 분석에서는 중기 전망 기간 동안 농업 생산 전망 수립에 타당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1.1.1. 기준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에서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초기에는 둔화되고,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2.8% 수준에서 낮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수치는 COVID-19 이전 5년간 연평균 성장률(3.4%) 대비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와 지리적·경제적 균열에서 비롯된 공급망 교란 심화가 GDP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고, 금리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며, 세계 투자 및 소비 성장이 저하될 것으로 가정한다.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도 수출 지향적 산업의 무역 장벽 증가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계절적 여건에 따른 호주의 농업 생산성은 변동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평균 이상 수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2025/26년도에는 중립적 기후 조건이 예상되며, 이후 2026/27년도, 2027/28년도에는 두 해 연속 라니냐 발생, 2028/29년도 엘니뇨 발생, 2029/30년도 기후는 평상시 중립적 조건으로 회복될 것을 가정하였다.

1.1.2. 대안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망 초기에 상승하고, 2029/30년도까지 3.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아시아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소득증가가 GDP 상승을 견인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로 비필수재(discretionary products)에 대한 소비 성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낮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실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과 호주 달러 강세는 호주산 수출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실질 가격 상승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공급망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가정된다.

계절적 조건의 경우 2025/26년도에 중립적 기후 조건이 유지되고, 2026/27년도 엘니뇨, 2027/28년도, 2028/29년도 두 해 연속 라니냐가 예상되며, 2029/30년도에 다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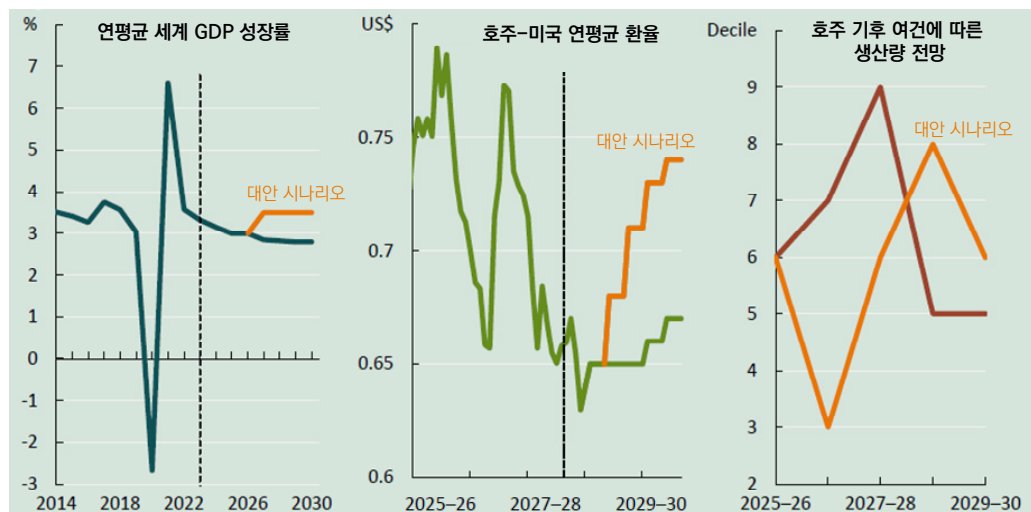
립적 기후로 돌아올 것으로 가정된다. 전망 기간 초기 매우 건조한 기후 조건이 가정되어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총생산량 누적 전망치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기준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 비교

	구분	기준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세계 수급 요인	GDP	2.8%로 둔화 및 유지	3.5%로 증가 및 유지
	인플레이션	가속화	완화
	금리	제한적	완화
	소비 성장	둔화	완화
계절적 요인	2025/26	중립적 기후 조건	중립적 기후 조건
	2026/27	습윤한 기후 조건(라니냐)	건조한 기후(엘니뇨)
	2027/28	습윤한 기후 조건(라니냐)	습윤한 기후(라니냐)
	2028/29	건조한 기후(엘리뇨)	습윤한 기후(라니냐)
	2029/30	중립적 기후 조건	중립적 기후 조건

자료: ABARES(2025.3.)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1〉 거시 경제 지표와 기상 여건 가정(중기 전망)



주: 검정색 점선 우측과 자료들은 ABARES의 가정임. GDP 성장률은 2023년 각 국가 GDP에 IMF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가중평균값을 이용함. 생산량 전망치는 분위수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ABARES의 가정이 반영됨.

자료: ABARES(2025.3.).

2. 밀 전망

2.1. 호주 밀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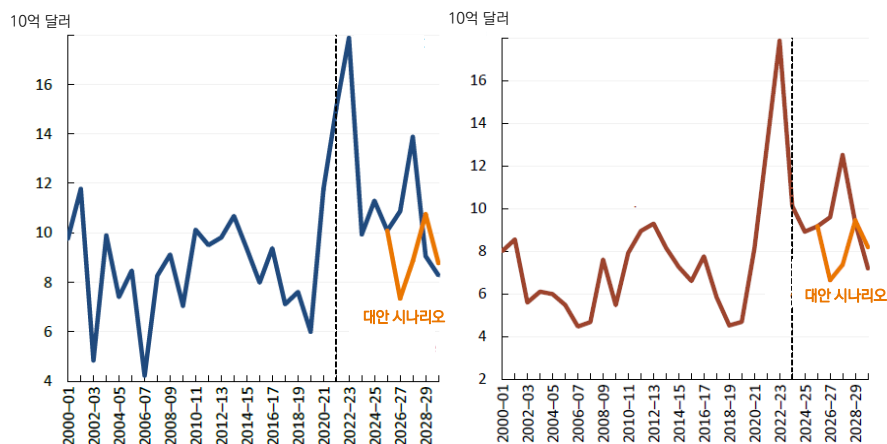
2.1.1. 호주 밀 생산액 단기 전망

2024/25년도 밀 생산액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1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높은 생산량이 밀 생산액을 전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 밀 생산액은 밀 가격 상승폭보다 밀 생산 감소폭이 더 큰 영향으로 8% 감소한 104억 달러로 예상된다.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양호한 기온과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서호주의 기후 조건이 반영되어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계 밀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 여건 악화와 세계 재고 감소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1.2. 호주 밀 생산액 중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중기 전망 기간(2025/26~2029/30년도)의 밀 실질 생산액은 83억에서 139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호주 밀 실질 생산액(좌)과 수출액(우) 전망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금액은 호주 달러 기준임.
자료: ABARES(2025.3.) p.30, p.31.

이는 생산액은 기록적으로 높았던 최근 연도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밀 실질 생산액은 74억에서 107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 기간 후반부 호주 내 생산량 감소 및 밀 국제 가격 하락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1.3. 밀 수출액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 밀 명목 수출액은 수출 물량 감소와 밀 국제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89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속된 풍작으로 축적되었던 재고량이 소진되면서 수출 가능한 밀 공급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2023/24년도까지 과거 10년 평균 실질 수출액인 86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1/22년도 이후 3년 동안 호주의 최대 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입 수요는 2024년 중반부터 다소 감소하였지만, 다른 주요 수출국의 호주산 밀 수출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4/25년도 상반기 호주의 밀 수출 상위 5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예멘, 한국, 베트남이며, 이 국가의 수출액 비중은 전체 밀 수출액의 58%를 차지하였다.

2025/26년도 밀 명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24/25년도 밀 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가능 물량의 확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1.4. 밀 수출액 중기 전망

2029/30년도까지 밀 실질 수출액은 72억에서 125억 달러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2026/27년도에 밀 실질 수출액이 감소하고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 수출액은 66억에서 94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2.2. 밀 가격 전망

2.2.1. 밀 가격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의 밀 수출 명목 가격은 수입 수요가 위축된 국제 가격 하락세를 반영

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월 말 이후 밀 가격 상승 요인은 북반구 주요 생산국에서의 불리한 생산 여건, 세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옥수수 가격 상승,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수출 할당제를 도입을 통한 흑해 지역의 수출 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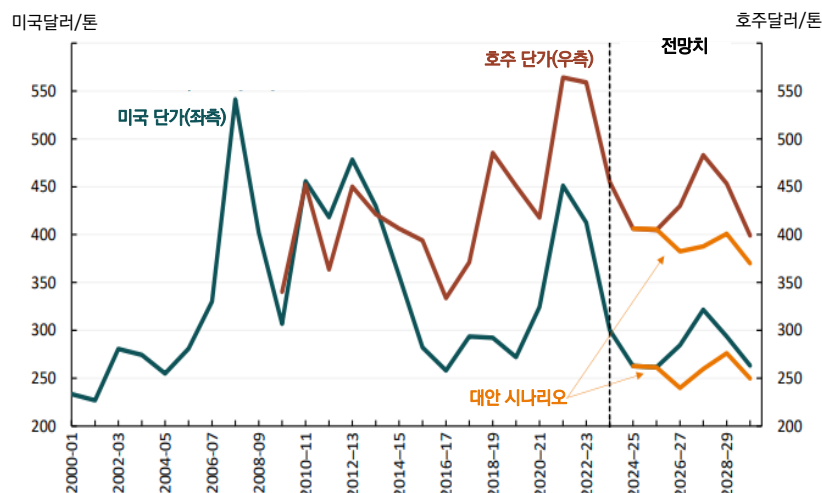
2025/26년도 밀 명목 가격은 러시아 등 세계 최대 밀 수출 및 생산국에서의 불리한 생산 여건, 세계 소비 증가, 주요 수출국에서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2.2. 밀 가격 중기 전망

호주 밀 중기 전망 가격은 세계 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화되는 국제 밀 가격 추세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가격은 2027/28년도에 톤당 483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9/30년도에는 톤당 399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망 기간 초기 호주 밀 가격은 국제 가격과 유사한 추세로 하락하지만, 호주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밀 가격은 세계 밀 생산량 증가와 호주 달러 강세로 인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29년도에 톤당 401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9/30년도에 톤당 37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미국과 호주 실질 수출 가격 전망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금액은 호주 달러 기준임.
자료: ABARES(2025.3.) p.33.

2.3. 호주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

2.3.1. 호주 밀 생산량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3,4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24년도까지 과거 10년 평균인 2,660만 톤 대비 28% 높은 수준이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단수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에서는 대체로 기후 조건이 양호하였고, 서호주에서는 예상보다 생산 여건이 양호해 수확량 감소분을 상쇄하며 전국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호주산 밀 품질은 주별로 상이한데,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고단백 밀 비중이, 서호주에서는 저단백 밀 비중이 높았다.

2025/26년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0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2023/24년도까지 과거 10년 평균 대비 15% 높은 수준이다.

2.3.2. 호주 밀 생산량 중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밀 생산량은 2027/28년도에 3,70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전망 기간 후반부에는 계절적 여건에 따라 평균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 파종면적은 전체 겨울 작물 재배면적의 절반 수준인 1,270만~1,310만 ha로 예상된다. 대안 시나리오의 생산 분위 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정되며, 생산 분위수 3~8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27년도 생산 분위수 3은 가뭄과 유사한 건조 기후 조건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호주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3. 호주 밀 수출량 단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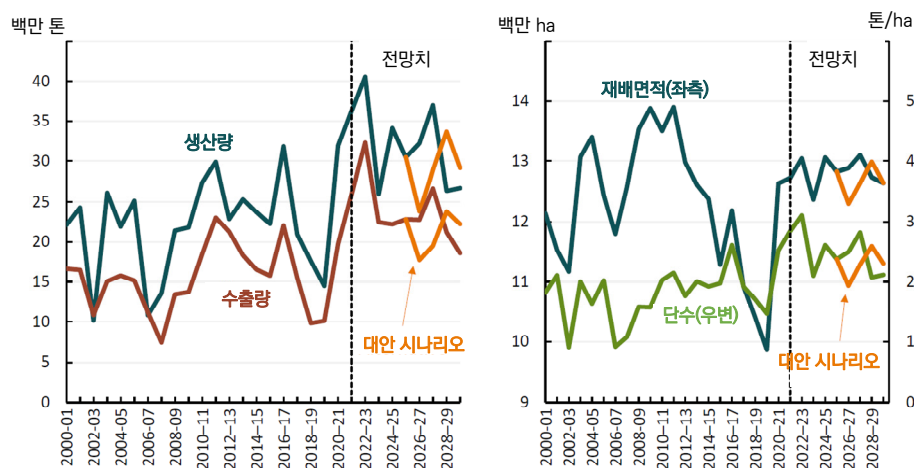
2024/25년도 호주 밀 수출량은 전년 대비(2,250만 톤) 대비 소폭 감소한 2,220만 톤이지만, 서호주의 높은 생산량 영향으로 전체 수출량은 평년 수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4/25년도 생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낮은 밀 재고량의 영향으로 인한 재고 비축으로 2024/25년도 수출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 수출량

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가능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2,2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3/24년까지의 10년 평균 수출량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2.3.4. 호주 밀 수출량 증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에서 증기 전망 기간 수출량은 1,860에서 2,67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8/29년도 건조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전 2년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출 가용량 증가로 수출량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불리한 생산 여건과 낮은 생산량으로 수출량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호주 밀 생산 및 수출량(좌)과 생산 현황(우)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금액은 호주 달러 기준임.
자료: ABARES(2025.3.) p.35.

2.4. 호주 밀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2.4.1.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의 수출 경쟁력 제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식용 및 사료용 밀 수요가 소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밀 수입 수요는 저소득 소비 비중이 높아 다른 시장 대비 가격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세계 무역 장벽 증가와 지리적·경제적 분

열을 가정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이는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호주 수출업체들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높은 밀 수요에 대해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주요 수출국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호주 달러 약세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시장에서 타국산 밀 대비 호주산 밀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이끌 여지가 있다.

2.4.2. 호주 곡물 생산성 개선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호주 밀 생산성 향상은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제한되고,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경운 농업 및 토양 수분 보전을 위한 피복 관리 등 재배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농가로 규모가 전환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호주 및 세계 기후 조건이 변동이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기후 인자의 변화와 더불어 재배 관리 기술 상승, 농가 규모 변화는 호주 밀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생산량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다.

2024/25년도 겨울 작물 재배 시즌에는 토양 수분 보전 및 수분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농업 기술과 종자 품종이 선행되어 어려운 계절적 여건 하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밀 수확량이 달성되었다. 그 결과, 3년 연속 기록적인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전국 평균 밀 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잡곡

3.1. 잡곡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3.1.1. 잡곡 생산액 단기 전망

2024/25년도 보리 명목 생산액은 국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42억 달러, 수수의 명목 생산액은 국내 가격 하락 및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3% 감소한 8억 9,900천만 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보리 명목 생산액은 3% 감소한 40억 달러, 수수는 10% 감소한 8억 700만 달러로 예상된다.

3.1.2. 잡곡 생산액 증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의 보리 실질 생산액은 우호적인 계절 여건으로 2027/28년도 최고치에 도달하고, 2029/30년도에 감소세를 보여 32억에서 43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의 실질 생산액은 6억 1,200만~9억 7,900만 달러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망 초기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정한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보리 및 수수 실질 생산액은 2026/27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보리의 실질 생산액은 28억에서 37억 달러, 수수는 5억 3,500만에서 8억 1,000만 달러 사이로 전망된다.

3.1.3. 잡곡 수출액 단기 전망

2024/25년도 보리의 명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33억 달러) 24% 감소한 25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평년 수출량으로의 회복과 재고 소진으로 수출 가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25/26년도에는 국제 가격 상승과 재고 증가로 보리 수출액이 소폭 증가한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4/25년도 수수 명목 수출액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8억 8,600만 달러) 12% 증가한 9억 9,500 달러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5/26년도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출 가능 공급량 감소로 수수의 명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8억 7,400만 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병아리콩 명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에 인도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타작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렌틸콩 수출액은 높은 수익성과 수확량 증대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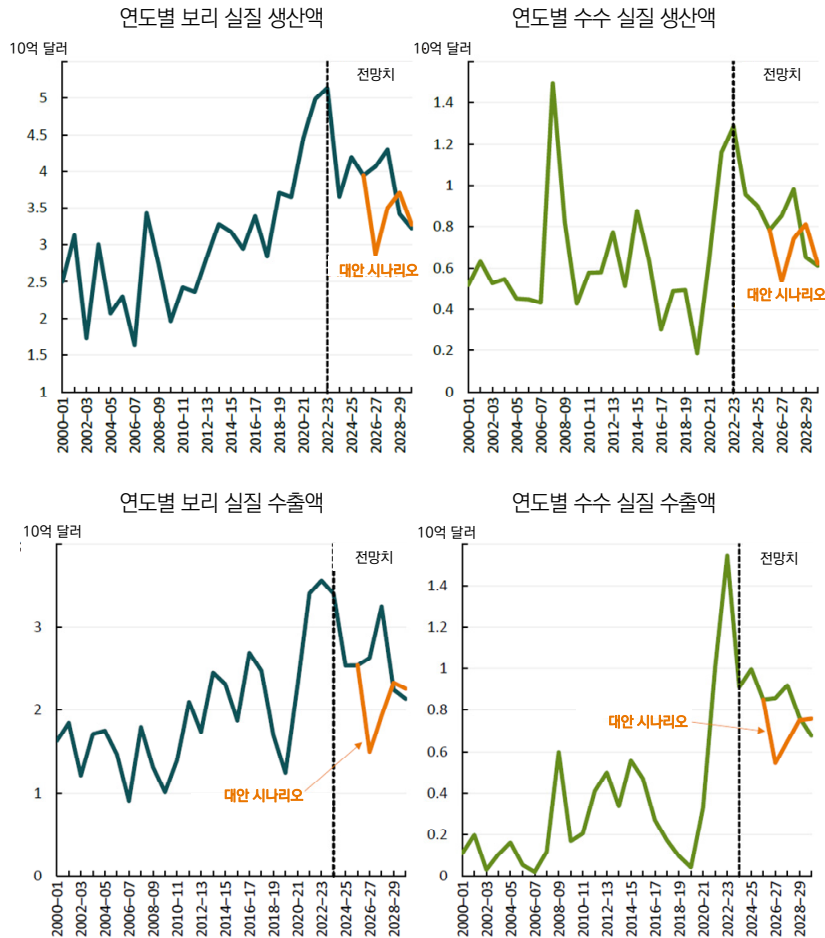
3.1.4. 잡곡 수출액 증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보리와 수수의 실질 수출액은 2027/28년도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리의 실질 수출액은 2027/28년도 3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29/30년도에 21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수 실질 수출

액은 2027/28년도 9억 4,5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9/30년도에 6억 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6/27년도 건조한 기후 조건의 영향으로 보리 및 수수의 수출액이 감소한 이후 2029/30년도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 대비 높은 실질 수출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의 실질 수출액은 16억에서 26억 달러 사이, 수수의 실질 수출액은 6억 5,400만~8억 1,8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연도별 호주 조곡 실질 생산액 및 수출액



주: 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금액은 호주 달러 기준임.
자료: ABARES(2025.3.) p.38, p.39.

3.2. 잡곡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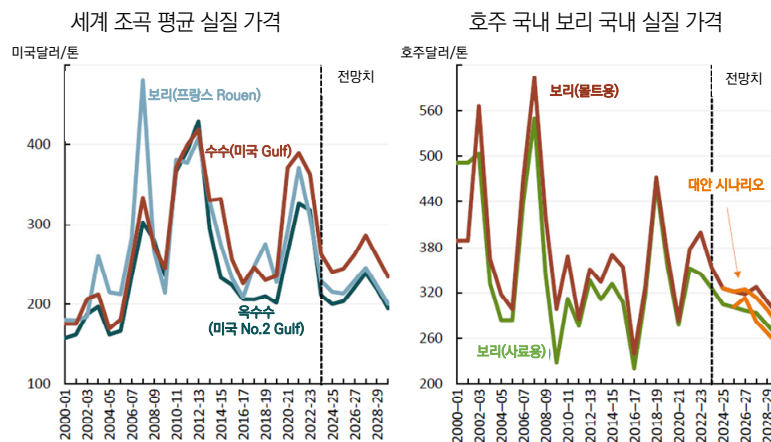
3.2.1. 호주 국내 잡곡 가격 전망

2024/25년도 호주의 명목 보리 가격(Geelong feed 기준)은 세계 곡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2022/23년도(317달러/톤) 대비 4% 하락한 톤당 305달러로 전망된다. 2025/26년도에는 국제 가격 상승과 주요 수출국의 옥수수 및 보리 재고량 감소로 호주 내 조곡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사료용 보리 가격은 전년 대비 2% 상승한 톤당 311달러, 맥주용 보리 가격은 2% 상승한 332달러/톤, 수수 가격은 1% 상승한 393달러/톤에 이를 전망이다.

3.2.1. 호주 수출 가격 전망

호주 수출업자들의 수취 가격은 주요 수출국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 달러 약세와 상대적으로 유리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운송비에 의한 것으로, 수수와 보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수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가격 프리미엄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 2025/26년도 세계 사료용 곡물 지표 가격 중 옥수수(US Gulf, fob 기준) 가격은 전년 대비 5% 상승하여 톤당 210미국달러, 보리는 2% 상승한 톤당 220미국달러, 수수는 5% 상승한 톤당 252미국달러로 전망된다.

〈그림 6〉 세계 조곡 가격(좌) 및 호주산 보리 가격(우)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43.

3.2.2. 잡곡 가격 중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호주산 사료용 보리 실질 가격은 글로벌 공급 완화로 하락하여 톤당 261달러에서 296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계절 여건 개선과 글로벌 시장 환경 개선, 호주 달러 강세로 2026/27년도 보리 실질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전망 기간 후반부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9/30년도 세계 생산량 증가가 전망됨에 보리 실질 가격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3.3. 호주산 잡곡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

3.3.1. 호주산 보리 생산량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산 보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3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다. 생산량 증가는 뉴사우스웨일즈와 서호주 전역에서의 우호적인 계절 조건이 호주 동남부 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주변부 지역까지 보리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북부 곡물 재배 지역에서의 습윤한 기후 조건이 수확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5년도 호주산 보리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이 최근 호주산 보리에 부과했던 고율 무역 관세의 영향으로 수출 가능 공급량 감소했던 영향에 기인한다.

3.3.3. 호주산 수수 생산량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산 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30만 톤으로, 이는 과거 10년 평균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9~10월의 토양 수분이 평년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수 파종 전망에 긍정적 요인을 미쳤지만, 겨울 병아리콩의 생산량 확대와 면화 재배 확대로 수수 재배면적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름철 강우가 달링다운스(Darling Downs) 및 리버풀평원(Liverpool plains) 등 주요 지역에서 초기 생육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확량 향상으로 생산량 추정치는 높아진 상황이다.

3.3.4. 호주산 수수 수출량 단기 전망

호주산 수수 수출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여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국내 가축 사료 공급에서 중국 및 일본 수출 시장으로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며 수출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는 가축사료 뿐 아니라 중국 주류인 바이주 생산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수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수수 생산량은 퀸즐랜드 지역에서 습윤 기후 영향력이 감소하여 11% 감소한 200만 톤으로 예측된다. 2025/26년도 수수 수출량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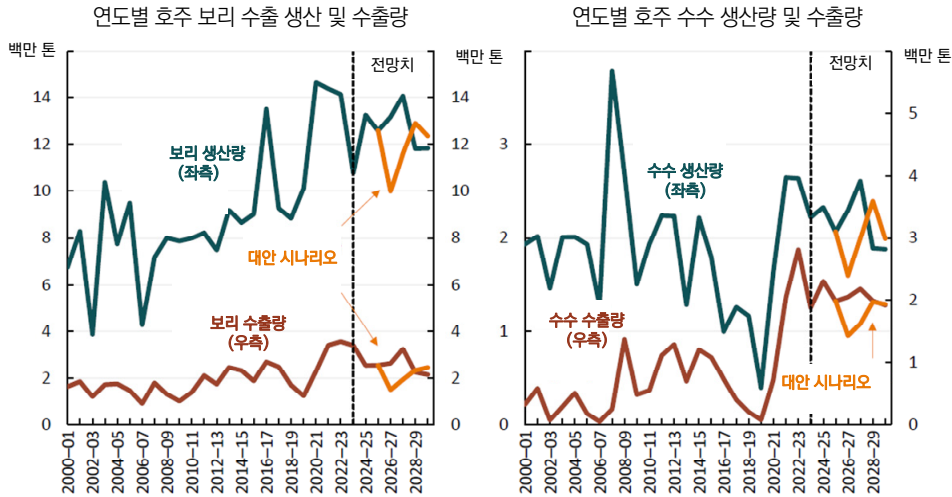
3.3.5. 호주산 잡곡 생산량 및 수출량 중기 전망

2025/26년도 호주산 보리 및 수수 생산량은 작황에 우호적이었던 기후에서 평상시 기후로 복귀함에 따라 감소하여 전년 대비 5% 감소한 1,260만 톤으로 예상된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 평균 생산량으로 복귀하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빅토리아 및 남호주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 호주산 보리 수출량은 국제 가격 상승과 전년도 높은 이월 재고로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27/28년도까지 계절 조건과 이에 따른 생산 영향으로 보리 및 수수 생산량은 증가한 이후 감소하며, 수출량은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리 수출량은 2027/28년도에 85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7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수 수출량은 같은 기간 220만 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19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전망 초기 건조한 기후가 가정됨에 따라 보리 및 수수 생산량이 감소한 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후반부로 갈수록 습윤한 기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조곡의 생산량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연도별 조곡 생산량 및 수출량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및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44.

3.4. 호주 잡곡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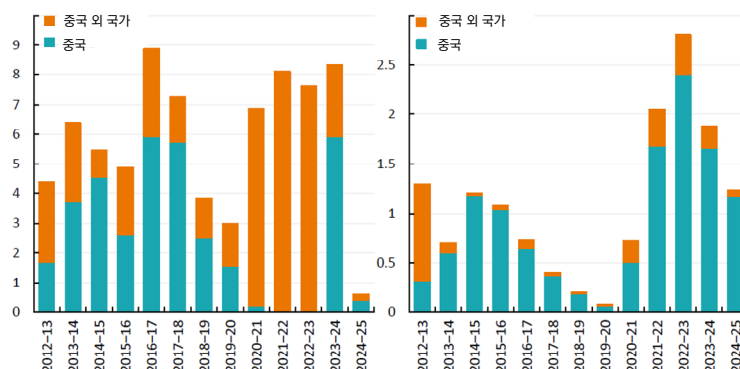
3.4.1. 중국의 자급률 개선

중국은 호주 농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2023/24년도 기준 호주 농림수산물 총 수출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리와 수수의 최대 수입국이다. 2023년 8월 보리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가 폐지된 이후, 2024/25년도 호주산 보리 수출량의 70% 이상, 수수 수출량의 95% 가량이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중국은 곡물 안보와 곡물 자급률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자급정책을 도입하여 국내 곡물 생산량 증대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 곡물 생산 증가는 향후 호주산 보리 및 수수 수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호주는 국제 수요 흐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계 보리 재고 감소와 국제 가격 및 수출 단가 상승이 호주산 곡물 수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옥수수 가격 상승도 호주 수출 수요에 호조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대체 사료용 곡물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사료용 보리, 밀, 귀리, 라이밀 등 대체 사료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는 과거 무역 환경 변화에도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2020년 이후 중국이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 수출업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일본 시장으로 신속하게 수출을 전환해온 바 있다.

〈그림 8〉 연도별 호주산 보리(좌) 및 조곡(우) 수출량



자료: ABARES(2025.3.) p.47.

호주산 수수 생산은 세계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수수는 중국 바이주 생산 수요와 가축 사료로 사용되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가격 또한 상승세에 있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호주 수수 생산자들은 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2021/22년도 이후 생산량과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4. 카놀라

4.1. 카놀라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4.1.1. 카놀라 생산액 단기 전망

2024/25년도 카놀라 명목 생산액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도 추정치인 42억 달러보다 6% 증가한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카놀라 명목 생산액은 카놀라 가격 상승과 남호주의 생산 개선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1.2. 카놀라 생산액 증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에서 카놀라 실질 생산액은 2027/28년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생산액은 33억에서 66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측되며, 2029/30년도에는 33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망 기간 동안 세계 카놀라 재고 부족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과 호주 생산량 증가로 실질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망 기간 후반부에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실질 생산액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 2026/27년도 카놀라 실질 생산액은 33억 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후 전망 기간 후반부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9/30년도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높은 수준인 37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전망 기간 동안의 예상 생산액은 호주 생산 감소와 세계 카놀라 가격 하락이 생산액 하락에 영향을 미쳐 33억에서 41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측된다.

4.1.3. 카놀라 수출액 단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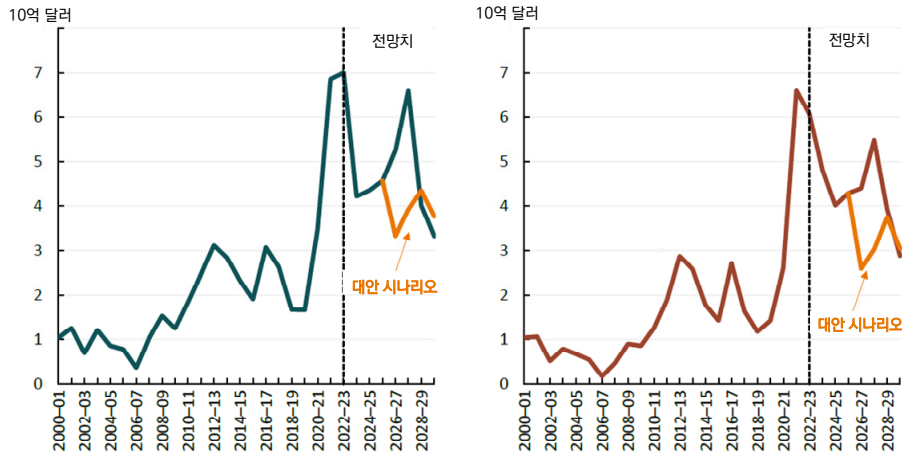
2024/25년도 카놀라 명목 수출액은 38억 달러로 예상보다 높은 생산액에도 2023/24년도 재고 비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이다. 2년 연속 기록적으로 높은 수확량으로 인해 수출량이 높게 유지되었으나, 재고가 축소되며 수출액이 낮게 예측되었다. 2024/25년도 수출량은 현재 생산량 대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에는 수출가격 상승과 생산량 개선으로 카놀라 명목 수출액이 10% 증가하여 4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4.1.3. 카놀라 수출액 증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2027/28년도 카놀라 실질 수출액은 높은 생산량과 국제 시세 상승의 영향을 받아 56억 달러로 가장 높을 전망이며, 후반부에는 28억 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 카놀라 실질 수출액은 하락한 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6억에서 37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9/30년도 수출액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소폭 높은 30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호주 카놀라 실질 생산액(좌)과 수출액(우) 전망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이며, 금액은 호주 달러 기준임.
자료: ABARES(2025.3.) p.48.

4.2. 카놀라 가격 전망

4.2.1. 카놀라 가격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산 카놀라 명목 가격(멜번 항만 도착 기준)은 전년 대비 13% 상승한 톤당 746달러로 전망된다. 멜번 항만 가격은 호주 수출 가격(Kwinana, fob 기준)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며, Kwinana 기준 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한 톤당 537미국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산 카놀라 가격 상승은 유럽연합의 호주산 카놀라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non-GMO 카놀라에 대한 높은 수요에서 기인한다. non-GMO의 재고 부족, non-GMO 가격 프리미엄, 캐나다산 GMO의 풍부한 공급량은 GMO와 non-GMO 가격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호주 수출 가격은 전년 대비 15% 상승률을 전망하는 EU 카놀라 가격(프랑스 Moselles 기준)과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2024/25년도 세계 카놀라 기준 가격(캐나다 Vancouver 기준)은 전년 대비 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 수요가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5/26년도 호주산 카놀라 명목 가격은 2% 상승하여 톤당 76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생산량 감소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격 규제는 호주 non-GMO 카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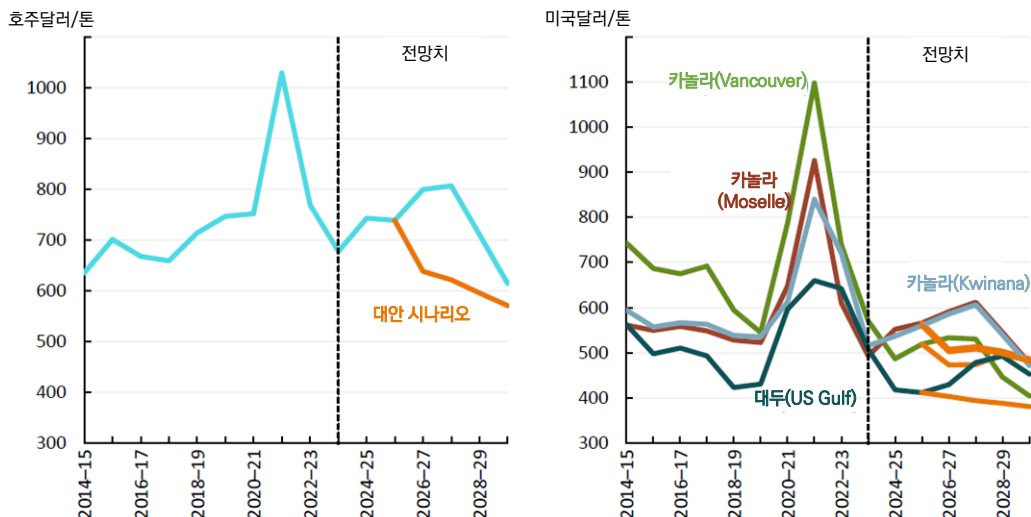
라에 대한 수요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최대 경쟁국인 우크라이나는 2024년 12월부터 정부 주도로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에 대한 최소 수출 가격 규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은 수입 카놀라의 절반 이상과 해바라기씨유의 약 95%를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격 규제는 단기적으로 유럽에서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4.2.2. 카놀라 가격 중기 전망

기준 시나리오 하의 중기 전망에서 호주산 카놀라 실질 가격은 상승 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톤당 613에서 805달러 사이로 예상된다. 2029/30년도 전망치는 613달러로 예측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호주산 카놀라 실질 가격은 하락세를 보여 2029/30년도 가격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7% 감소한 톤당 571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6/27년도와 2027/28년도에 높은 세계 재고와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원만한 무역 상황을 바탕으로 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실질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호주 카놀라 실질 가격(좌) 및 유지 종자 지표 가격(우)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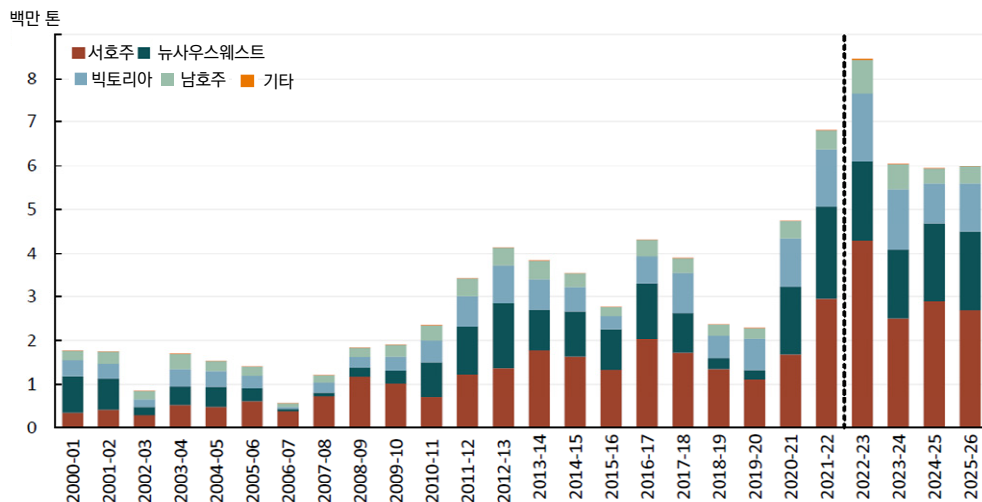
4.3. 호주산 카놀라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

4.3.1. 카놀라 생산량 단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산 카놀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지만, 최근 역대 최고 생산량을 보였던 3개년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생산량인 5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4/25년도에 빅토리아 및 남호주 일부 지역의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서호주와 뉴사우스웨일스의 높은 생산량이 감소폭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 카놀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기록적으로 높은 생산량을 보여준 2023/24년도까지 과거 5개년 평균 대비 6% 낮은 수준이다. 높은 수출 가격과 호주 살아있는 양의 단계적인 수출 중단 정책은 서호주의 카놀라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빅토리아 및 남호주 지역의 강수량 개선은 수확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주별 카놀라 생산량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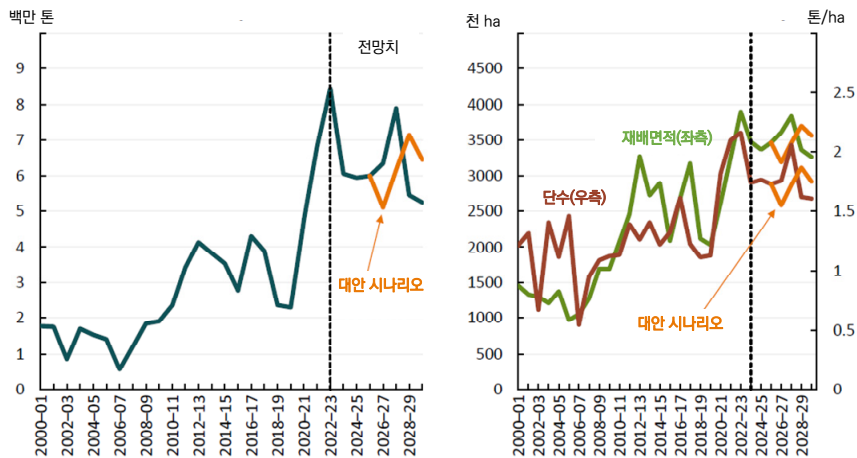
자료: ABARES(2025.3.) p.52.

4.3.2. 카놀라 생산량 증가 전망

시나리오 하에서 호주 카놀라 생산량은 증가 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며, 520만에서 790만 톤 사이로 전망된다. 2027/28년도에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건조한 기후 조건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및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카놀라 수출량 또한 생산량 증감과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카놀라 생산량은 510만 톤에서 710만 톤 사이로 예상되며, 전망 초반부에 감소 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28년도 이후 계절 조건 개선이 수확량 증대와 재배면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연도별 카놀라 생산량(좌)과 생산 현황(우)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추정치(estimates),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53.

4.3.3. 호주산 카놀라 수출량 전망

2024/25년도 카놀라 수출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지만,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출량인 460만 톤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생산 호조와 이에 따른 높은 기초 재고량을 보였던 이전 연도의 영향으로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99%까지 상승하였다. 이번 수출량 감소에 따른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77%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10년 평균 비중인 75%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다.

4.4. 호주산 카놀라 기회와 위험요인

4.4.1. 퀸즐랜드 내 대규모 유지종자 압착 설비 건설

2025년 Australian Oilseeds Holdings와 Energreen Nutrition은 퀸즐랜드 에메랄드에 다품종 유지종자 압착 설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퀸즐랜드 내 유일한 대규모 압착 설비로, 바이오디젤 산업 성장을 위한 소규모 유지 종자의 생산 확대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설비는 2026년 12월에 완공 및 시험 운영을 할 예정이며, 일일 최대 압착 능력은 200톤, 오일 생산 능력은 50톤으로 예상된다. 압착 설비는 퀸즐랜드 내 폰가미아¹⁾(Pongamia) 오일을 주요 바이오연료 원료로 육성하려는 장기 산업 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첫 번째 폰가미아 플랜테이션은 2025년에 조성될 예정이다. Rio Tinto사는 타운즈빌 인근에 폰가미아 종자의 바이오디젤 원료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3000ha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한편, 중앙 퀸즐랜드의 과거 유지 종자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999년 이후 인프라 부족, 축산 및 사탕수수와의 경합, 호주 대가품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압착 설비 건설과 폰가미아 플랜테이션 조성은 중앙과 북부 퀸즐랜드에 위치한 생산자들에게 고부가가치 유지종자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폰가미아의 도입은 사탕수수 생산자가 유지 작물로 품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4.4.2. 대두 및 캐나다산 카놀라 가격 하락

유럽연합과 밴쿠버 카놀라의 가격 차이는 2024년에 톤당 102미국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호주산 카놀라 수출 가격은 통상적으로 EU 카놀라 가격과 연동되며, 이번 가격 차이 확대는 호주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유럽은 사료용으로도 부가적인 사용이 가능한 non-GMO 카놀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EU의 캐나다산 GMO 카놀라 수요가 증가할 경우, 호주산 카놀라의 가격 상승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2023/24년도 EU의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은 4만 2천 톤(전체 수입량의 1.1%)이었으나,

1) 폰가미아라고도 불리며, 내생 열대성 콩과 식물로, 고온, 염분, 침수에 강하며 대면적 작물 재배가 부적합한 토양에서도 잘 자람. 씨앗은 유분 함량이 높아 2세대 바이오디젤 생산에 활용 가능하며, 박은 가축사료로도 이용 가능함.

2024/25년도에 35만 2천 톤(8.4%)으로 증가하였다. 호주는 EU 카놀라 수입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2024/25년도 기준 EU 카놀라 수입량의 32%를 공급하였다. 또한 미국 대두(US Gulf No.2 기준)와 유럽연합(프랑스, Moselle 기준)의 카놀라 가격 차이도 2024년 12월에 톤당 156 미국 달러로 확대되었다. 대두는 바이오디젤 및 가축사료의 대체 원료 역할을 하는데, 대두와 카놀라 가격 차이의 지속적으 확대는 EU 카놀라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1월 이후 유지 종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26년도 호주산 카놀라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원예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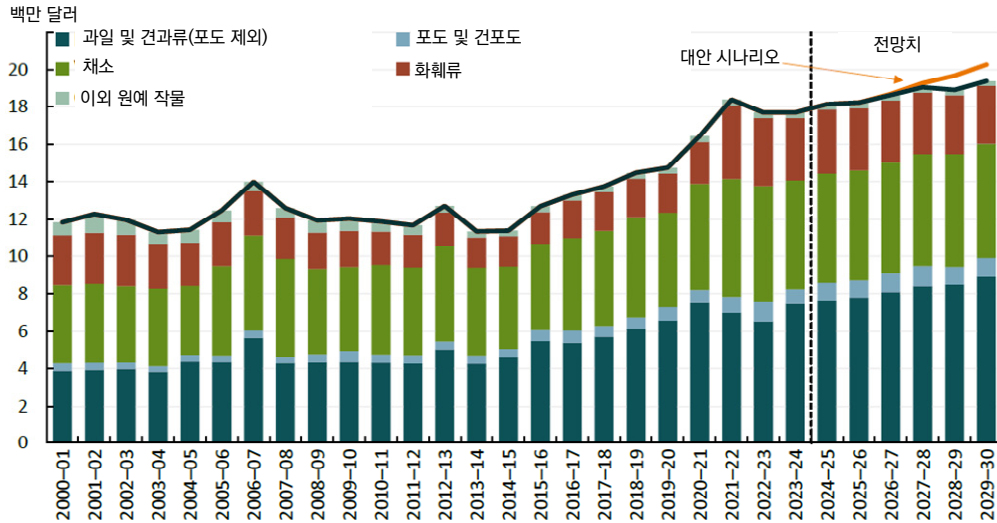
5.1. 원예작물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5.1.1. 원예작물 생산액 단기 및 중기 전망

2024/25년도 원예작물의 명목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와 수출 지향 산업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1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원예작물의 명목 생산액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개수 이용 가능성에 의한 생산량 증가로 4% 증가한 1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원예 실질 생산액은 증가세를 보이며 2029/30년도에 1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액 증가는 원예작물 생산량 증가와 안정적인 실질 가격에 기인한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의 원예작물의 실질 생산액은 호주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가정이 바탕이 되어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연도별 원예작물 실질 생산액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이며, 이의 원예 작물은 커피, 에센셜 오일, 채소 종자 등을 포함함.
자료: ABARES(2025.3.)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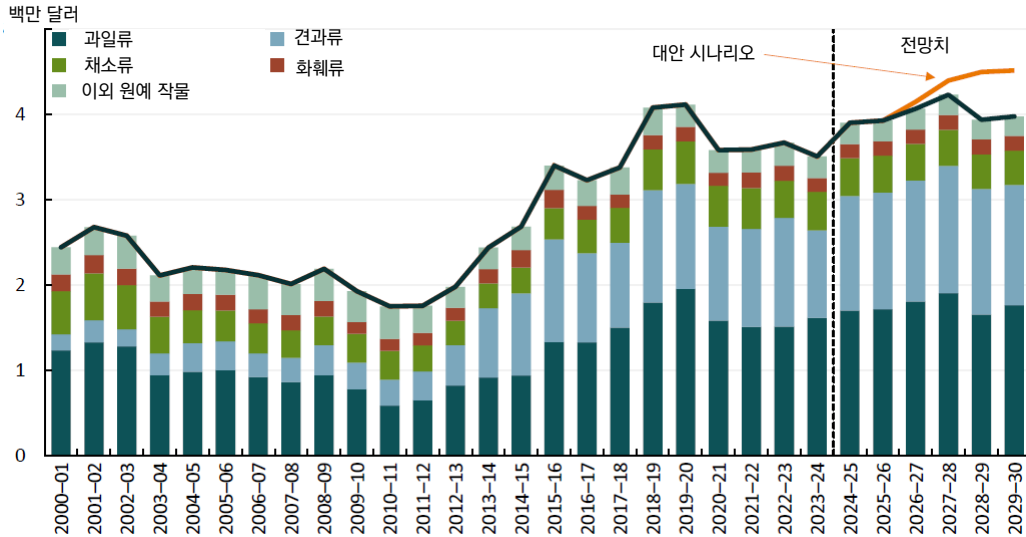
5.1.2. 원예작물 수출액 단기 및 중기 전망

2024/25년도 원예작물의 명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39억 달러, 2025/26년도에는 4% 증가한 41억 달러로 전망된다. 수출액 상승은 국내 생산 호조에 인한 과일 및 견과류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25/26년도에는 세계 공급 증가 폭이 수요 증가폭을 상회하여 수출액이 하락할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원예작물의 실질 수출액은 상승세를 보이며, 39억에서 42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지향 산업 품목의 실질 가격이 세계 수요 둔화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량 증가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8/29년도 생육에 불리한 기후 조건이 예상되어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며, 고가 시장으로의 프리미엄급 품목의 수출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무역 제약 최소화, 아시아 및 중국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요, 세계 경제 상황 호조 가정이 바탕이 되어 원예작물의 실질 수출액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가격과 수출량 증가를 통해 수출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호주 환율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4〉 연도별 원예작물 실질 수출액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이며, 이외 원예작물은 커피, 에센셜 오일, 향실료 채소 종자 등을 포함함.
 자료: ABARES(2025.3.) p.60.

5.2. 원예작물 가격 전망

5.2.1. 원예작물 가격 단기 및 중기 전망

2024/25년도 호주 국내 과일 및 채소 가격은 우호적인 생육 조건으로 인한 국내 공급량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지출 위축으로 수요가 둔화하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025/26년도 호주 국내 과일 및 채소 가격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전망 등 수요 개선으로 인해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우호적인 생육 조건으로 인해 국내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 상승 폭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예작물의 실질 가격은 높은 국내 수요와 인구 증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고, 대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호적인 계절 조건과 보다 견조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실질 가격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5.2.2. 원예작물 수출 가격 단기 전망

2024/25년도 명목 수출 가격은 세계 수요 증가가 세계 공급 증가를 상회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5/26년도부터는 수출 중심 원예 산업(아몬드, 마카다미아, 생포도, 감귤류)에서 명목 수출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아몬드의 2025/26년도 명목 수출가격은 kg당 8.30달러로 높은 세계 공급에 의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몬드의 세계 최대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의 생산량 역대 세 번째 수준으로 예상되고, 두 해 연속으로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며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마카다미아의 2025/26년도 명목 수출 가격은 kg당 8.47 달러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아프리카, 중국, 호주 주요 산지 공급량 증가 폭이 수요량 증가 폭을 초과한 데 기인한 것으로, 2025/26년도에도 추세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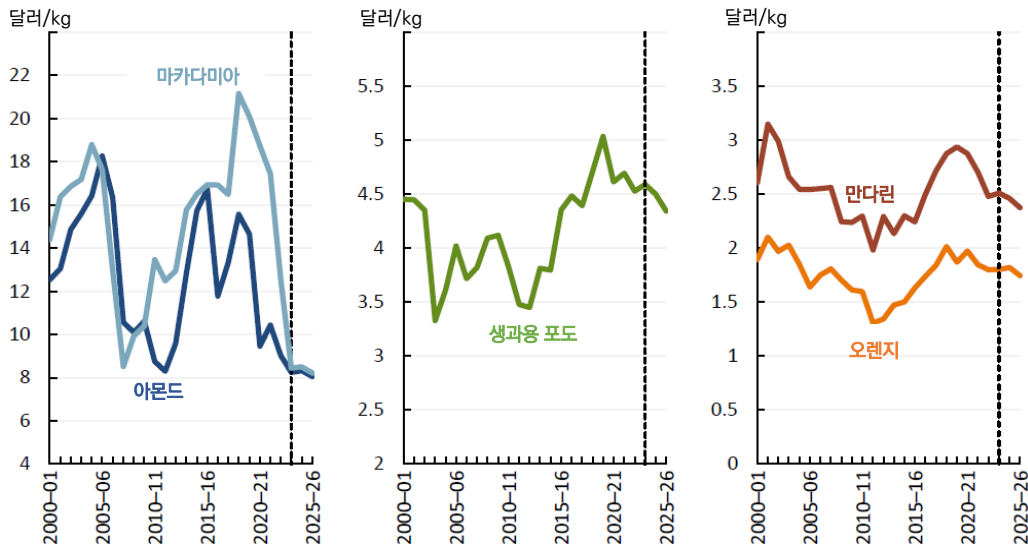
과일류의 명목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수요 약화와 중국의 소비지출 둔화에 기인한다. 과일류(포도, 오렌지, 만다린) 가격 또한 중국과 호주 주요 수입국들의 수요 감소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3/24년도 기준 호주산 과일 수출의 20%(3억 3천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이는 중국 소비 지출 둔화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2024/25년도와 2025/26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시아 신흥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및 고부가가치시장(일본, 한국, 홍콩)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하락 부분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장으로의 2023/24년도 수출액은 18%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5.2.3. 원예작물 수출 가격 중기 전망

전망기간 동안 원예작물의 실질 수출 가격은 국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높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호주산 국내 가격은 소비 수요 회복이 공급 증가를 상쇄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견과류 시장에서 아몬드와 마카다미아는 성목 단계에 이르러 세계 공급량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류의 실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강

한 수요는 가격 하락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건조한 세계 경제 가정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5〉 연도별 호주 주요 원예작물 실질 수출 가격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62.

5.3. 호주산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

5.3.1. 생산량 단기 및 중기 전망

2024/25년도 국내 생산은 우호적인 생육 조건의 영향으로 과일 및 견과류 재배면적 증가와 수확량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조성된 과일 및 견과류 수목이 성목화되며 수확량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5/26년도는 평년 이상 수준의 기후 조건과 농수 접근성이 높아져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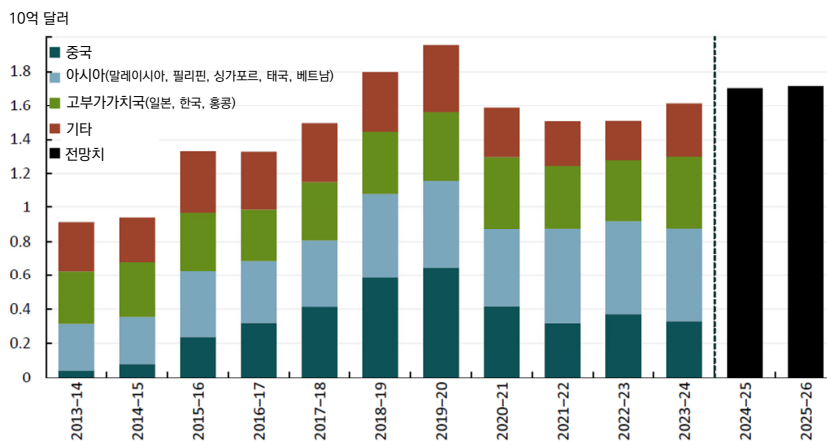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의 생산량은 장기 성장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건조한 계절 조건 가정으로 인해 기준 시나리오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3.2. 수출량 단기 및 중기 전망

호주산 원예작물 수출량은 2024/25년도와 2025/26년도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호주달러 환율은 호주달러로 표시된 수출 상품의 수요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견과류의 경우 2024/25년도 미국산 아몬드 대량 생산으로 인한 세계 재고가 증가는 호주산 수출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일은 신흥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및 고부가가치시장(일본, 한국, 홍콩)에서의 강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시나리오와 대안시나리오에서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건조한 기후 조건이 바탕이 되어 기준 시나리오 대비 수출 가능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6〉 수출국별 호주산 과일 실질 수출액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63.

5.4. 원예작물 기회와 위기 요인

5.4.1. 서호주 공항 개항

2026년 개항 예정인 웨스턴 시드니 공항은 신선 농산물을 국제 시장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산 원예작물 수출 확대 기회를 부여한

다. 전면 서비스 공항으로 운영되며, 야간 운행 제한 없이 국내 및 국제 노선 운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호주산 원예작물에 대한 수요가 전망되고 있어 이번 공항 개항은 거대 소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3/24년도 항공을 통한 호주 원예작물 수출액은 5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전체 34억 달러에 달하는 원예작물 수출액의 15%를 차지하였다.

5.4.2. 호주 슈퍼마켓 가격 조사

호주 원예거래규범(The Horticulture Code of Conduct)은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하에 제정된 의무적 산업 규범으로 도매업자와 생산자 간 거래 규율을 규정한다. 그러나 본 규범은 슈퍼마켓이 도매상 없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슈퍼마켓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에 호주 슈퍼마켓은 자율적 식료품거래규범(Voluntary grocery code of conduct)하에서 농가와의 거래 관계를 관리한다. 2024년 1월 24일 호주 정부는 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CCC)에 호주 슈퍼마켓에 대한 가격 책정, 도매 및 소매 가격 차이 등에 조사 지시를 내렸다. 1년간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슈퍼마켓 시장 경쟁과 2008년 ACCC 조사 이후의 변화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9월 27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권고안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2025년 2월 28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6. 와인용 포도 및 와인

6.1. 와인용 포도 생산액 단기 및 중기 전망

2024/25년도 와인용 포도의 명목 생산액은 포도 착즙량 증가, 적포도와 백포도 가격 상승으로 7% 증가한 9억 3,7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5/26년도에는 와인용 포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인 9억 6,600만 호주(전년 대비 3% 증가)일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와인용 포도 실질 생산액의 중기 전망은 감소세를 보이며, 7억 8,000만~8억 9,000만 달러 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나리오 내 와인용 포도 착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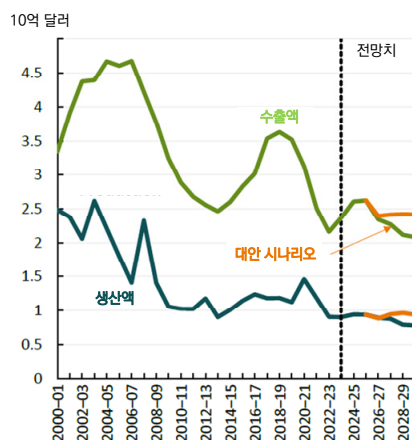
감소와 가격 약세가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가치분 소득 성장과 비필수재 수요 증가가 가정되어 와인용 포도 실질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2. 와인 수출액 단기 및 중기 전망

2024/25년도 와인 명목 수출액은 수출량 증가와 프리미엄 와인 중심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5/26년도 수출액은 4% 증가한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와 호주 달러 약세에 의해 경쟁력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와인 실질 수출액 중기 전망은 감소세를 보이며 21억~23억 달러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둔화된 세계 경제 가정이 와인과 같은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수출액 하락을 이끌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실질 수출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소비 시장이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되어 수출액의 하락 폭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호주 달러 강세와 다른 주종으로의 소비 교체는 수출액 증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와인용 포도 실질 생산액 및 수출액



주: 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67.

6.3. 와인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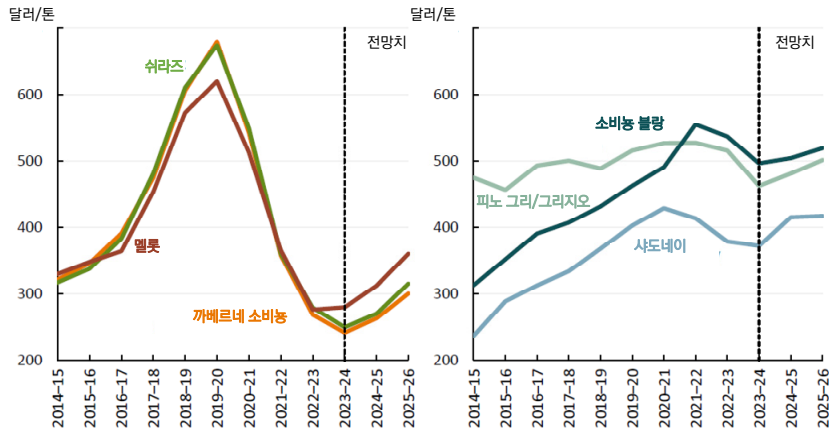
6.3.1. 적포도 가격 전망

2024/25년도 호주산 와인용 포도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품종 및 지역에 따라 상승 폭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26년도 와인 생산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적포도 가격은 여전히 2023/24년까지 과거 10개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024/25년도 온난 내륙 지역의 적포도 품종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쉬라즈(Shiraz),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 멜롯(Merlot) 품종은 연평균 8~12% 상승할 전망이다. 와인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와인 생산자들의 와인용 포도 수요 증가가 적포도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높은 재고 수준과 호주 및 해외 와인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장기 평균 대비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6.3.2. 청포도 가격 전망

2024/25년도 온난 내륙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포도 품종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샤도네이(Chardonnay) 품종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배 초기 초 발생한 서리 피해로 인해 리버랜드(Riverland) 및 기타 지역의 샤도네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인 생산자 간 물량 확보 경쟁 심화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 온난 내륙 지역의 청포도 가격은 전년 대비 14~17% 상승할 전망으로, 2025/26년도 청포도에 대한 전망은 적포도 대비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포도 실질 가격은 10년 평균 대비 4%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그림 18〉 온난 내륙 지역의 연평균 포도 명목 가격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이며, 온난 내륙 지역은 리버랜드(Riverland), 리버니아(Riverina) 머레이-달링 스완힐(Murray-Darling Swan Hill) 지역을 뜻함.
자료: ABARES(2025.3.) p.70.

6.3.3. 와인 수출 가격 전망

2024/25년도 와인 평균 수출 가격은 중국으로의 수입 재개로 인해 전년 대비 10% 상승한 리터당 4.01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요는 특히 서늘한 기후 지역 와인과 프리미엄산 호주 와인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5/26년도 수출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 가격으로는 10년 평균 대비 약 1%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6.4. 와인용 포도 생산량 전망

6.4.1. 와인용 포도 생산량 전망

2024/25년도 와인용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44만 톤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2023/24년까지 과거 10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청포도 생산량은 리버랜드(Riverland), 리버니아(Riverina), 바로사 밸리(Barossa Vally) 등 주요 생산지역에서의 서리피해로 인해 8%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확량 및 품질이 저하되어 일부 포도 재배자들은 포도밭을 수확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리

피해 지역 이외에서는 높은 수자원 저장량과 덥고 건조한 여름 기후가 과실의 조기 성숙을 유도하여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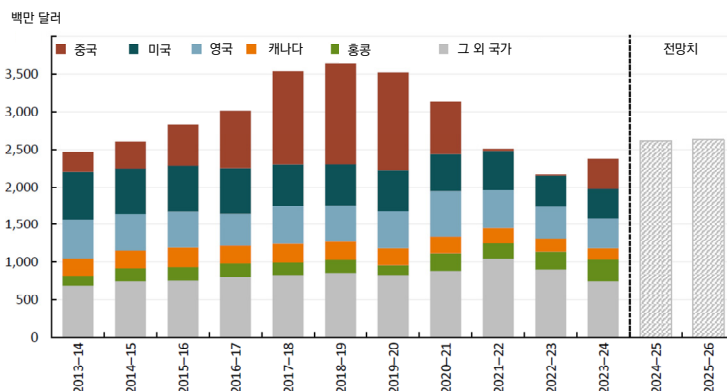
2024/25년도 적포도 생산량은 수출 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호적인 기후 조건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확량 증가에 기여하며, 와인 생산자들의 포도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수확하지 않는 포도 비율은 감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량 와인 생산용 적포도 가격은 여전히 평균 이하 수준이며, 생산원가의 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적포도 착즙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5/26년도 와인용 포도 생산량은 143만 톤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으로, 이는 청포도 착즙량은 증가와 적포도 착즙량 감소가 상쇄된 결과이다. 총 착즙량은 높은 적포도 재고량과 와인 생산자들의 수요 둔화로 포도밭 재배면적 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6.4.2. 와인용 포도 수출량 전망

2024/25년도 호주산 와인 수출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6억 5,100만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수요 증가가 홍콩, 미국, 영국의 수요 약세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말 무역 제한 폐지 이후 중국시장으로의 호주산 와인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9〉 호주 와인 실질 수출액



주: 검정색 점선 우측은 전망치(forecasts and projections)임.
자료: ABARES(2025.3.) p.71.

2025/26년도 중국 수출량 및 수출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19 이전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주와의 경쟁 심화, 저도수 주류 선호로 인한 와인 소비 감소, 소비심리 위축, 가계 자산 감소로 인한 비필수재 소비 제한, 수출업자와 중국 내 생산업체 경쟁으로 높은 와인 소매 유통 재고 등의 영향에 기인한다.

6.5. 와인용 포도 기회와 위기요건

6.5.1. 무역 장벽 심화 가능성

대다수 경제 전망 기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발표를 고려하여, 2025년 글로벌 무역 흐름에 대한 관세 증가 위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3/24년 기준 영국, 중국, 미국은 호주산 와인 주요 수출국이었다. 와인 무역장벽 증가 가능성은 2025년과 2026년 호주산 와인 수출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역장벽의 규모와 범위, 정책 대응과 무역 다변화와 같은 부수적 효과에 따라 호주의 와인 수출업체의 경쟁력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6.5.2. 호주 포도·와인 산업 규제 개선 분석

2024년 8월 23일, 줄리 콜린스 농림수산부 장관은 크레이그 에머슨 박사(Dr Craig Emerson)가 호주 포도·와인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경쟁 관계, 계약 관행 및 위험 관리와 관련된 규제 방법에 대한 독립 영향을 분석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해당 보고서와 권고안이 2025년 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와인용 포도 구매 규범(Code of Conduct for Australian Winegrape Purchases)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규정·자율적 산업 규범(non-prescribed voluntary industry code)으로 운영되고 있어 규범에 가입한 와인 생산자들만이 생산자와의 상업 거래 시 본 규범을 적용받는다. 향후 제출될 보고서에는 포도·와인 산업 내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인 규제 또는 개입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와인용 포도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따라 투입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6. 요약 및 시사점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에서는 매년 3월 호주 농산물 보고서에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전망을 싣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밀, 조곡(보리 및 수수), 카놀라, 원예작물, 와인용 포도 및 와인에 대한 단기 전망과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중기 전망을 살펴보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전망 초기에 작황에 유리한 습윤 기후를 가정하고 있으며,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아시아 및 신흥국의 소득 증가에 따른 견조한 세계 성장과 전망 초기 생산량 감소 후 생산량을 회복하는 기상 여건을 가정하였다.

곡물(밀, 보리, 수수)은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생산액과 생산량을 보였고, 그 추세를 이어 단기 생산량과 생산액 또한 평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산량 증가와 재고 누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카놀라 또한 작황 호조로 평년을 상회하는 생산량과 이에 따른 수출량이 전망되는데, 이는 최근 높은 수출 가격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작물의 생산액, 수출액, 생산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세계 공급량으로 실질 수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와인용 포도 및 와인 생산액은 세계 수요 감소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호주는 주요 농업 수출국이며, 국제 상황과 국제 공급 및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방면 농업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량 및 수출 증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생산성 개선, 재배면적 확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국 전환을 통해 세계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 규제를 완화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 국제 무역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해상 운송 차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호주의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의 생산 및 수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ABARES. 2025 March,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quarter 2025', Volume 15, Issue 1